

"유다 먼저"

-아세르 인트레이터



로마서에서 우리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라는 구절을 세 번 발견합니다. 한 번은 복음에 대하여 (1:16), 또 한 번은 진노에 대하여 (2:9), 마지막은 영광에 대하여 (2:10). 저는 이 구절이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을 계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유대인 우선"과 토라에서 "유다 우선" 사이의 연관성은 성경의 언약들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가지신 순서의 일관성을 드러내줍니다.

메시아 언약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임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미 사라와 결혼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먼저였습니다.

그 씨는 그 다음 레아를 통해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을까라도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장자인 르우벤에게로 갔어야 했지만, 그는 왜곡된 성행위 때문에 자격을 잃었습니다 (창 35:22). 둘째 시므온은 살인 때문에 자격을 잃었습니다 (창 34:30). 레위는 시므온과 협력했기 때문에 왕위 계승권은 잃었지만, 셋째로서 제사장직을 얻었습니다.

언약적 권리는 그 다음인 유다에게 넘어갔습니다 (창 43:3). 그는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함으로써 자신의 자격을 입증했습니다 (창 44:18).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유다의 리더십 순서는 이미 정해졌던 것입니다 (창 46:28). 광야에서의 지파별 진영 순서 역시 "유다

우선"이었습니다 (**민 10:14**).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유다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삿 1:2**).

순서에는 논쟁이 따른다

유다 지파의 우선권에 대한 논쟁은 다윗이 왕이 될 때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이후,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유다 지파가 대관식 권리를 "훔쳐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삼하 19:41-43**). 유다 지파는 자신들의 우선권이 다윗과의 "종친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열 배" 더 많고, 유다가 그들을 멸시했다고 대꾸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먼저"라는 주장이 이스라엘의 평등 주장보다 강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의 갈등의 조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세계 교회에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유다가 먼저라는 언약의 순서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순서는 마지막 때까지 (**슥 12:7**), 재림 때까지 (**마 23:39**), 그리고 천년 왕국 때까지도 (**마 19:28**)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들에 대해 신실하십니다. 언약들에는 순서가 있고, 그 순서는 권세의 구조를 반영합니다 - 결혼에서건(**딤후 2:13**) 가정에서건, 정부에서건 교회에서건, 이스라엘에서건.]

영과 진리로 예배

-댄 저스터



마태복음 6:33 은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합니다. 그의 왕국을 구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예배를 통해 왕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확장은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고, 예배를 통해 권능이 부여됩니다.

요한복음 4 장에서 예수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예배의 내용이 진리에 근거해야 하며 진실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자애로우시며 공평하신 창조주, 영존하시는 분으로 찬미 받으십니다.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자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으로 찬미 받으셔야 합니다. 출애굽 및 하나님의 역사적 행위는 시편에 스며 있습니다.

요한복음 4 장에서 예수아께서는 모세 5 경적 순서와 새 언약적 순서 사이의 차이점을 규정하고 계십니다. 예수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좋은 새 언약에서, **우리의 예배는 주님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 십자가에 달리심, 그분의 자비, 그분의 사역,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하늘로부터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재림과 미래의 통치 - 에 집중됩니다.**

잘 알려진, 이중적 의미를 가진 한 구절에서, 예수아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 12:32). 이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당신께로 이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권능과 사랑은 부활로 이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와 자비가 만납니다. 이곳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또한 예배로 우리가 주님을 들어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불 붙은 영의 열정을 뜻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Jonathan Edwards 가 그의 대표작 <신앙과 정서 The Religious Affections>에서 아주 잘 논했듯, 성부, 성자,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감정을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애정 관계입니다.

샤부올 기도회를 돌아보며



저희 철야 기도회는 기술적인 문제를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 생방송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인터넷 방송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도회는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곳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손님들이 전세계에서 오셨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해 함께 해주신 전 세계 모든 분들께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가운데 저희 편에
서주신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 세우기



혼자서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는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해
관계들을 맺어 팀으로 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